

변화하고 있는 북한 이해(1) : 정치, 경제, 사회, 생활

[문열기]

<오늘의 목표 - 학습목표>

1. 북한의 정치 변화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북한의 경제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북한의 사회 변화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4. 북한의 화장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오늘의 목표 - 학습내용>

1. 북한의 정치 변화
2. 북한의 경제
3. 북한의 사회 변화
4. 북한의 화장

[실천하기]

<북한의 정치변화>

김정은 체제의 국가 발전 목표는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이다.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은 김정은 체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2년 1월 1일 『로동신문』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 공식화 되었다.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은 '과학, 교육, 보건, 문학예술, 체육 도덕을 비롯한 모든 문화분야를 선진적인 문명강국의 높이에 올려 세'우겠다는 것이다.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모든 문화분야'를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인민들로 하여금 '사회주의 문화의 창조자, 향유자'가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은 김정은 시대에 시작되었지만 "문화건설의 모든 부문에서 장군님께서와 원수님께서 제시하신 사상과 로선,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 사업을 규정되었다. 수령의 사상과 노선,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사회주의 문명을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은 2012년에 이어 2013년에 이르면서, '원수님의 과업', '사상'으로 높아졌다. 2013년 7월 14일자 『로동신문』의 기사 「우리당의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 사상의 정당성」에서 '사회주의 문명국'을 "사회주의문화가 전면적으로 개화발전하는 나라, 인민들이 높은 창조력과 문화수준을 지니고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창조하며 향유하는 나라"로 규정하면서,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 사업을 '원수님의 역사적인 신년사에 제시된 중요한 과업'이자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21세기의 현실적 요구'를 반영한 사상으로 평가하였다.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은 김정은 시대의 비전인 동시에 선대의 유훈을 받드는 사업이었다.

<북한의 경제>

1) 시장의 탄생

북한의 변화를 이끄는 주된 동력의 하나는 시장이다. 시장을 통한 경제 활동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시장을 빼놓고 북한 경제를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북한 경제의 특성상 시장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농민들의 잉여농산물을 거래할 수 있는 정도였다. 시장이 생활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은 널리 알려진 대로 '고난의 행군'이었다. 북한 경제가 바닥을 드러내면서 배급은 끊어졌고, 생존 차원에서 시장 경제가 시작하였다.

2) '시장' 인민경제를 지배하다

인민들이 시장으로 쏟아지면서, 시장을 통한 경제 규모가 커졌다. 북한 당국은 시장이 커지면서 시장을



통한 경제 활동이 사회주의 경제 체제의 근간을 흔든다고 판단하고 통제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생활의 많은 부분이 이미 시장을 통해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통제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시장을 통한 경제가 일상으로 자리 잡으면서 북한 당국도 시장을 통제하는 정책에서 시장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2003년 장마당은 마을 귀퉁이에서 혹은 들판에서 감시원들의 눈치를 보면서 슬금슬금 물건을 거래하던 초기 모습에서 '떼벗이'를 하고 파란색으로 지붕을 덮은 반원의 격납고 같은 모습으로 '종합시장' 화려하게 변신하였다. 종합시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 만큼 한 구역을 차지하는 마켓이 되었다.

시장이 북한 주민의 일상에 미친 영향은 막대하였다. 시장을 통해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 '시장'이라는 개념이 자리 잡았다. 배급제에 익숙했던 예전에는 앉아서 당의 배급을 기다렸다. 하지만 고난의 행군 이후에는 시장을 통해 적극적으로 물건이나 재능, 인력을 시장을 통해 거래하기 시작했다. 돈을 모아서 국경을 넘어 물건을 사서 팔기도 하고, 텃밭을 가꾸어 농산물을 재배해서 팔기도 하고, 팔 것이 없으면 산이나 바다에서 캐고 잡은 산나물과 물고기를 팔았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돈이 될만한 사업에 투자를 시작했다. 그렇게 시장은 인민생활과 맞물려 새로운 북한을 만들고 있다.

3) '돈주'

돈주는 시장을 통해 자본을 축적한 신흥 자본가를 일컫는 말이다. 장마당이 생겨난 초기 먹거리와 사업을 통해 돈을 번 주민이거나 중국이나 일본과의 사무역을 통해 자본을 축적한 화교나 재일교포들이다. 소규모로 축적된 자본을 불러 가면서 자본의 규모를 키웠고, 당과 연결되어 무역으로 사업을 확대하면서 돈을 모았다.

규모가 큰 돈주들은 당이나 무역성, 군의 무역회사의 명의로 무역을 하면서 지하자원 수출, 공산품 수입으로 자본을 축적했다. 돈주들은 유통업, 주택시장까지 진출하였다.

4) 휴대폰

북한에서 휴대폰은 북한 변화와 경제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이다. 대도시의 거리에서 휴대폰을 사용하는 사람을 보는 것은 일상이 되었다. 이동통신 가입자가 2018년 500만 명을 넘겼다는 보도가 있었다. 2,500만 명으로 추산하는 북한 인구를 고려할 때,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고가의 휴대폰이 불티나게 팔려나갈 정도로 소비 수준도 높아졌고, 휴대폰이 일상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졌다. 문자서비스는 물론 영상통화도 가능하고, 다양한 앱도 생겨났다. 평양에서는 휴대폰 앱으로 짜장면을 배달시켜 먹기도 한다.

외국인들에게는 휴대폰이 금지되었다. 북한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은 예외없이 휴대폰을 맡겨야 했다. GPS기능이 있어서 정보 노출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하지만 하지만 최근에는 자유롭게 휴대할 수 있다. 유심도 판매한다. 6달러 정도 하는 유심칩을 이용하면 북한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5) 김정은 시대의 '새로운 경제관리체제'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기업활동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확대하겠다'는 '6.28조치'였다.

'6.28조치'는 김정은의 경제 정책의 방향을 가장 잘 보여준다. '6.28조치'는 크게 농업 부문과 공업 부문에 대한 내용이다. 농업 부문에서는 '협동농장의 생산단위 규모를 기존(10~25명)에서 세분하여 3~5명으로 축소하고, 해당 생산단위가 일정 규모의 경지(포전)를 담당하도록 하는 '포전담당책임제'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업 부문에서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를 확고히 고수하면서 국가의 통일적 지도"를 하겠지만 "모든 기업체들이 경영 활동을 독자적으로 창발적으로 해나가자"는 것이다.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기업의 자율권을 확대하겠다는 적극적인 인센티브의 도입이었다. 공장·기업소에 대해 경영상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개인의 투자를 통한 경영 참여를 허용하여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특히 개인의 투자를 명분으로 한 경영 참여를 허락했다는 것은 상당한 변화로 읽히는 부



분이다. 계획 수립 단계부터 제품 판매 및 수입처분까지 기업의 모든 활동에서 개인의 참여를 비롯하여 기업 자체의 권한을 확대하는 조치였다.

6) 경공업과 관광 산업

북한 경제에서 두드러지게 변화를 보이는 분야는 경공업 분야이다. 인민생활을 중심으로 한 경공업 분야의 발전은 2016년 5월에 있었던 제7차 당대회에서 발표된 경제발전 5개년 전략에 따른 것이다. “당의 새로운 병진노선을 틀어쥐고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면서 인민경제 선행 부문, 기초공업 부문을 정상 궤도에 올려 세우고 농업과 경공업 생산을 늘려 인민생활을 결정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경공업 분야의 발전은 인민생활의 향상이라는 경제적인 목표도 있지만 동시에 경공업 분야를 발전시켜 내수를 진작하고, 대외 수출 산업을 육성하려는 전략도 있다.

<북한의 사회 변화>

1) 옷차림 정책

북한의 옷차림은 정책에 영향을 받고, 정책에 따라 바뀐다. 기본적으로 대중의 욕구를 창출하고 이를 산업으로 연결 짓는 남한의 구조와는 차이가 있다. 생산을 책임지는 주체가 국가이기에 북한 주민의 의복은 정책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옷차림이 화려해지고 달라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옷차림을 뒷받침할 옷감이 생산되어야 한다. 옷을 생산할 수 있는 물적 기반이 갖추어져야 한다. 그래서 북한의 옷차림 변화는 곧 북한 체제의 정책적 변화를 엿볼 수 있는 척도가 된다.

북한 경제가 상대적으로 좋았던 1980년 초반 김일성은 평양시민들의 옷차림이 다양하지 못한 것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평양시민들이 화려하고 맵시 있는 옷을 입지 않고 옷차림을 되는대로 하고 다니기 때문에 도시가 환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경공업 분야의 일꾼들이 시민들의 옷을 여러 가질 색깔로 꼭 맞게 해 입고 다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지어 여성들이 옷을 화려하게 입고 다니는 것을 시비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까지 하였다. 여성들은 자기 몸매와 계절에 맞게 모자와 수건도 쓰고 꽃양산도 쓰고 다니는 것이 좋다고 권장하였다. ‘생김새와 나이, 직업에 맞게’라는 애매한 테두리를 정하기는 하였지만 다양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2) ‘단정’과 ‘다양’의 모순을 파고드는 미감(美感)의 욕망

북한에서 가장 화려한 패션을 선보이는 것은 예술단이다. 1980년대 중반 보천보전자악단원들이 화려한 복장과 퍼포먼스로 주목을 받았다면 2008년 이후에는 삼지연관현악단, 은하수관현악단, 모란봉악단이 새로운 패션스타로 주목을 받았다. 특히 2012년에 등장한 모란봉악단의 패션은 주목거리다. 연주곡목과 퍼포먼스도 관심이었지만 패션도 주목을 받았다. 화려했다. 세련된 미모와 공주풍의 드레스, 경쾌한 음악에 맞추어진 어깨선과 쇄골이 드러나는 과감한 연주복, 허벅지가 드러나는 반짝이 초미니 원피스는 한층 젊고 밝은 분위기를 연출하는데 모자람이 없었다.

북한 주민이 일상으로 접하는 텔레비전도 화려해 졌다. 방송화면도 화려해지고, 첨단 모니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연출도 이루어졌다. 도시 건물도 회색을 벗고 밝은 색으로 갈아입었다. 시민들의 옷차림도 밝아졌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평양 주민의 옷차림은 갈색계통의 어두운 색이 중심이었는데, 요즘에는 색깔도 다양해지고 한층 밝아졌다.

3) 화려해지고 다양해지는 뷰티

여성들 사이에는 잠자리 날개(스카프), 긴목도리, 사각목도리, 붉은 바탕의 격자양복 등이 있었지만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었다. 고가의 물품이기도 하였고, 사회적으로도 고은 눈초리를 주지 않았다. 이런 물건들은 주로 재일동포를 통해 들어와 일부 제한된 계층에서나 할 수 있었다.

최근 북한에서도 패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북한 여성들도 머리를 가꾸고, 패션을 찾아 아름다움을 가꾸는 데 많은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 쌍커풀 수술을 받는 여성들이 많아졌고, 연령층도 낮아졌다. 평



양의 20~30대 여성의 상당수가 쌍꺼풀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에서는 의료행위는 제도적으로 무상이지만 쌍꺼풀 수술은 의료 행위가 아니어서 돈을 받고 한다. 시·군 단위의 진료소나 혹은 집이나 시장에서 돈을 받고 수술을 한다.

유행은 학생들 사이에서 민감하게 전파된다. 예전에는 위화감을 조성하고, 학습 분위기를 흐트러트린다는 이유로 중학생들에게 시계를 차지 못하게 한 적도 있었다. 지금은 보편화되었고, 귀걸이나 손가락지(반지)도 유행 중이다. 몸에 딱 붙는 일자바지, 목깃에 털을 달고 허리곡선을 살린 외제 여성코트인 몸매동복, 통발(통굽신발)도 유행을 반영한 패션이다.

4) 편의봉사로서 미용

일반적으로는 정서와 체질에 맞는 단정한 머리를 권장한다. 북한 여성들에게 인기 있는 머리는 ‘처녀는 생기 있게, 중년 부인은 세련되게, 노인인 젊어지게’ 해 준다는 민족머리라고 한다. 2000년대 중반까지 유행한 민족머리는 민족 전통의 헤어스타일을 바탕으로 응용한 것으로, 쪽진머리, 쌍태머리(두 가닥으로 뿔아 내린 머리), 외태머리(한 가닥으로 뿔아 내린 머리) 등이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민족머리보다는 개성을 돋보이게 하는 다양한 머리 모양이 인기를 끌고 있다.

미용사는 ‘미용기술강습소’를 통해서 양성되는데, 미용 분야에서 노력을 인정받으면 공훈미용가와 같은 공훈칭호를 받기도 한다. 미용가들은 전국 단위로 열리는 ‘전국 이발 및 미용 경기’를 개최하여 무용인들이 기술을 겨룬다.

북한 최고의 미용실인 창광원 미용실에서는 다양한 헤어스타일을 구비하고 손님의 선택을 기다린다. 김정은 체제에서 특히 강조하는 과학화의 영향으로 ‘꽃단장’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손님들의 선택을 기다린다. 꽃단장 프로그램은 100여 가지의 헤어스타일 데이터베이스인데,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서 여러 스타일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북한의 화장>

1) 지도자의 관심과 사랑의 선물 화장품

북한에서 화장은 여성들의 도덕이나 에티켓이었다. 사회생활을 하는 여성들이 갖추어야 할 도리 정도로 생각했다. 화장은 개인의 미를 표현하는 것이지만 북한에서 화장은 사회적 행위로 평가하였다. 북한에서 미학은 사회주의적 미감(美感)이다. 아름다움이란 곧 계급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았다. 하나의 대상을 보아도 자신이 속한 계급의 성격에 따라서 아름답게 보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게 보이기도 한다는 것이다. 개인의 아름다움도 사회주의의 미감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교양한다.

북한에서 예전부터 여성들은 화장을 하였다. 하지만 화장을 하는 것은 개인적인 미감을 가꾸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아름다움이라는 것도 개인의 기준이 아니라 계급에 따라서 미감이 나누어진다는 것이다. 미감은 곧 사회적 기준에 따라서 규정되는 것이다. 사회주의에 살고 있는 여성으로서 지켜야 할 도덕규율을 따르는 것이었다. 화장을 통해 자신의 미를 표현하지는 않았다.

2) 북한, 화장에 눈뜨다

보수적이던 북한의 화장문화도 달라지고 있다. 기초화장이 화장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에서 “사람의 얼굴을 아름답고 문화적으로 가꾸기 위한 색채예술의 한 분야”(길수미, 『화장과 우리 생활 : 누구나 아름답아질 수 있다』(조선출판물수출입사, 2017)로 개인의 아름다움을 과감하게 드러내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 ‘화장 잘하는 법’을 소개한 책자도 나왔고, 주름을 펴고, 노화를 방지하는 기능성 화장품도 속속 출시되고 있다. 사회주의 문명국의 여성으로 누려야 할 문화생활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온전히 사회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화장품은 김정은 체제의 경제 정책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김정은 체제의 경제 발전 전략은 선택과 집중이다. 중공업 중심에서 소비재 산업과 서비스 산업으로 전환하고, 북한의 자원과 기술로서 경쟁할 수 있는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화장품은 전략적 육성 분야로 개발되고 있다.



3) 수출전략품목으로서 화장품

북한 화장품은 주요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 화장품도 기초화장품에서 색조화장품으로 품목도 넓어졌고, 기능성도 강화되었다.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화장품 종류도 많아졌고, 기능성 제품도 속속 출시되고 있다.

북한 화장품 공장들은 김정은 시대의 경제전략인 '원료, 재료의 국산화', '현대화, 정보화'의 교시에 맞추어 세포줄기나 천연재료 등을 통해 원료의 국산화를 도모하면서, 생산공정의 현대화, 무인화를 추진하고 있다.

화장품공장의 혁신은 『로동신문』을 장식하는 주요 기사의 하나가 되었다. 화장품공장에 대한 김정은의 현지지도 기사는 물론 각종 경제 관련 주제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기사를 실고 있다.

4) 북한 화장품 브랜드와 종류

북한 화장품을 대표하는 브랜드는 신의주화장품 공장에서 생산하는 화장품인 '봄향기'이다. 다른 브랜드는 몰라도 봄향기를 모르는 여성은 없을 정도로 북한의 화장품 브랜드 중에서는 압도적인 브랜드 파워를 갖고 있다. 독점적이던 화장품 시장이 경쟁체제로 전환되었다.

북한 화장품을 대표하는 신의주화장품 공장의 '봄향기'만 알고 있는 인민들에게 평양화장품 공장의 '은하수'가 현대적인 첨단 시설을 갖추고 생산 설비를 현대화면서, 브랜드 경쟁을 선언하였다.

전통 브랜드인 봄향기와 은하수 외에 새로운 브랜드도 속속 생겼다. 금강산합작회사의 '금강산' 브랜드가 노화 방지와 주름살 제거 등의 기능성 화장품을 출시하면서 여심을 흔들었고, 신생 브랜드인 묘향천호합작회사의 '미래'화장품은 "래일의 아름다움을 약속해주는 미래화장품"이라는 카피를 내세우면서, 기능성화장품을 중심으로 한 제품과 원색의 파격적인 색채와 고급이미지를 강조한 디자인으로 젊은 여성들을 공략하고 있다.

현재 북한에서 생산되는 화장품은 대표적으로 '봄향기', '은하수', '미래', '금강산' 브랜드는 차별화된 상품을 출시하면서 본격적인 경쟁체제에 들어섰다. 북한의 경제 정책 변화가 생활문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